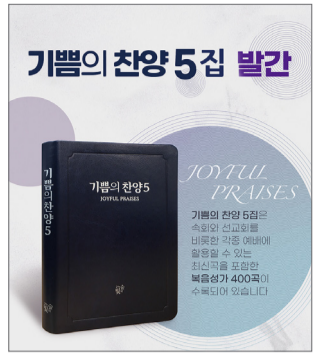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광림 선한나눔운동〉 수해지역과 선교지에 나눔박스 전달

제천 서지방, 철원 동지방, 터키, 몽골 등에 선한나눔운동 전개

**“일상은 멈춰도,
나눔은 멈추지 않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상은 멈췄고, 당연하게 누리던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천국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사랑과 소망을 전하기 위해 지난 4~5월 3차례의 ‘광림 선한소비운동’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운동을 전개했으며, 구로구와 금천구,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나눔 박스 1,500개를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와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돕기 위해 <광림 선한나눔운동>을 펼쳤습니다. 2주간 교회 입구에 수거 박스를 설치하였으며, 성도님들이 자유롭게 교회를 오가며 생필품과 즉석식품

등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기간 중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도님들이 나눔 박스를 채워주셨고, 매일 아침 수거 박스에는 물품이 가득하게 차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해 담임목사님의 나눔운동 소식을 들으신 분들이 온라인으로 현금을 해주시고, 사업장의 생산 물품을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수해지역, 선교지 나눔 박스와 후원금 전달 그 결과, 이번에도 나눔 박스 1,500개와 나눔의 집을 통해 모인 의류 85박스(약 2,000여 벌)를 만들어 수해로 큰 피해를 당한 제천시지방과 철원동지방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성도님들이 나눔 현금을 해주셔서 수해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한 교회에 후원금을 전달하여 교회 복구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나눔 박스는 수해 지역 외에도 각 지역 교회를 통해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되었고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코로나로 인해 선교사역이 어려운 선교사님들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해외선교지로 이어진 광림 선한나눔운동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교회는 세계에 세워진 광림미션센터를 통해 나눔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의료선교회에서는 몽골에 어린이 마스크 1만 장을 보내 이웃들에게 나눠줬으며, 교회에 기증된 속옷 약 5,000여 벌을 보내 각 교회와 지역 사회에 전달했습니다. 하루에 6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는 러시아에

서는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넣은 키트를 만들었고, 터키에도 위생 키트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P.국에서는 89년 만의 최대 폭우로 인해 도시 전체가 마비되었고 도시 곳곳이 파손되었습니다. 이에 긴급 지원을 통해 선교시설을 복구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미션센터에도 방역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광림 선한나눔운동은 ‘일상은 멈춰도 나눔은 멈추지 않습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진행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나눔의 마음은 멈추지 않고 매일 수거 박스를 가득 채웠으며, 남선교회, 여선교회, 실업인선교회에서도 물품을 대량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이웃에게 전달된 사랑과 나눔의 마음은 더욱 풍성한 한가위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사람의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여호수아 10장 14절)

모세 이후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입성하여 약속받은 땅을 취하기 위한 정복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 먼저 여리고와 아이 성을 함락시킨 뒤, 가나안의 남쪽 지역부터 공격합니다. 여리고와 아이 성의 함락 및 이스라엘의 진격 소식을 들은 남쪽 지역의 가나안 족속들은 연합군을 결성하였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자신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을 가나안 연합군이 공격하던 중 이스라엘과의 전투로 이어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때,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8절)라고 말씀하시며 여호수아에게 담대히 나가 싸우라고 명하십니다. 심지어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멈추는 기적을 베푸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본문은 그 날에 대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14절)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전쟁과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 해결 혹은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마주해야 하는 한계 상황에 부딪히며, 그 가운데 절박함, 절망과 좌절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놀라운 능력을 베푸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나아가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과연 여호수아는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주님의 능력과 동행을 경험하였을까요? 본문을 통해 여호수아의 모습을 살펴보면 새로운 신앙의 도전과 용기를 얻으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영적인 본향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본문을 비롯하여 10장 전체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길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갈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길갈에 요단에서 가져온 돌들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기념비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여호와와의 강한 손을 깨닫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수 4:22-24)

또한,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수 5:3).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행위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서 할례를 행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이 전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으로 감당하는 것임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켰습니다(수 5:10). 유월절은 430년간 종살이 했던 애굽으로부터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호수아 10장 8~14절

8. 그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9.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10.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므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륙하고 뱀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11. 그

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뱀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12.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13.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4.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자유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영적 의미를 지닌 길갈을 거점으로 삼고서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에 의한 것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처럼 길갈과 같은 영적인 본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과 사명, 정체성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인도하심에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 거룩한 목표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단 하나의 거룩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여,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거룩한 목표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 재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마 6:9~10).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 나라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리하여 맡겨주신 사명과 목표를 완수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기브온의 도움 요청에 응하여 열심히 전투에 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과 맺은 화친은 교묘한 속임수에 의한 것이었고, 기브온은 그저 이스라엘을 위해 나무를 패며 물 길는 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조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여호수아는 기꺼이 기브온을 도왔습니다. 나아가서 결국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치러야만 했을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투에서도 “태양이 머물고 달은 멈추어 달라”는 기도를 하면서까지 열정으로 싸움에 임합니다. 그리고 마치 무모한 것처럼 보이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는 단지 나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근시안적 시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넓은 시야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고, 그에 합당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한 인생, 주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셋째, 담대함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담대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맡겨주신 사명을 적극적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전쟁에 임해야 하는 그는 겁 없는 용기와 두들한 배짱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의지와 믿음으로부터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삶을 생각해보십시오. 그는 모세를 따라 40년의 광야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지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가장 큰 무기이자 담대함의 비결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10)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의로운 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호수아가 온전히 하나님과 그 말씀을 따라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우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영적인 담대함을 얻게 되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응답과 동행, 역사하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빛의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102-2056-5771



웨슬리의 발자취를 따라 - 6

‘세계 위에서 설교하는 존 웨슬리’



▲ 1891년 제작된 존 웨슬리 흉상 도자기 (광림 헤리티지 & 비전 홀 소장)
◀ 1830년대 스태퍼드셔 지역에서 제작된 도자기 ‘설교하는 존 웨슬리’

존 웨슬리의 신학과 윤리, 삶의 방식은 단순히 종교를 뛰어넘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 웨슬리를 존경하게 되었으며, 그를 단지 한 광적인 종교 집단의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존 웨슬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난 후 그를 지지하며 감리교회 신앙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대표적인 문화 중의 하나는 유명한 사람들의 얼굴을 대리석으로 깎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감리교인들은 웨슬리를 기념하고자 그의 얼굴을 본떠 기념물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문화와는 좀 달랐습니다.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까지 점토로 빚어 그의 정신과 마음 그리고

신앙을 담고자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듯 웨슬리의 흉상을 간직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감리교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존 웨슬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 존 웨슬리에 대한 기념품을 소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영국에서 빅토리아 여왕보다도 웨슬리의 얼굴이 더 많이 기념품에 새겨졌다고 할 정도로 웨슬리의 얼굴은 곳곳에 새겨졌습니다. 또한 존 웨슬리는 스태퍼드셔(Staffordshire)라는 영국의 중서부 지역을 매년 둘러 설교를 했습니다. 이 도시는 당시 도예가들이 모여 살던 곳으로 주민 대부분이 감리교인이었

습니다. 그들은 웨슬리를 기념하기 위해 점토로 웨슬리의 흉상을 만들었고, 훗날 그들이 미국에 이주하여 도예공업을 할 때도, 웨슬리 흉상을 만들어 미국 감리교인들에게 보급했다고 합니다. 1800년대 중반, 미국으로 확장된 감리교 운동은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사회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냈습니다. 1868년 미국의 윌리엄 S. 그랜트 대통령은 “미국에는 공화당, 민주당, 감리교회라는 세 개의 위대한 정당이 있다”라고 할 만큼 감리교회의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존 웨슬리의 흉상과 여러 기념품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기념품은 1830년대에 제작된 ‘세계 위에서 설교하는 존 웨슬리’입니다. 이 작품은 영국 런던 웨슬리 채플에서 소장하고 있던 것으로 2012년 김선도 감독님이 영국에서 설교하신 후 우리 교회에 기증된 것입니다. 한 손을 들고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모습과 한쪽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는 모습이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래에는 시계가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존 웨슬리가 항상 시간을 정확하게 지킨 것, 그리고 예배 시간을 의미합니다. 위에 고딕양식으로 조각된 설교단은 교회의 전통을 소중히 지킨 존 웨슬리의 신학을 의미합니다. 이 도자기 또한 스태퍼드셔라는 지역에서 제작된 것입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포토 뉴스



속회지도자교육 선물추첨 세미나하우스에서 진행된 기프트속회에서는 1교구 43속이 당첨되었다.



속회지도자교육
속회지도자교육
바로가기 QR코드



온타임
온타임 바로가기 QR코드



주일 말씀요약
주일 말씀요약
바로가기 QR코드

담임목사 동정



9/29	서울남연회 정책발표회
10/4	주일예배
10/11	주일예배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net



가을학기 츠즈라이프, 어번던트라이프 개강

10월 11일 ~ 11월 29일, 두란노 강의실, 양의 문에서 진행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우리 삶의 패턴과 방식, 모든 것들이 바뀌어졌다.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으로 예배와 강의를 하는 요즈음은 모이기에 힘써야 할 교회의 위기이다. 이런 상황 속에 가을학기 주일교육 프로그램인 츠즈라이프와 어번던트라이프가 평소보다 한 달 늦게 개강하게 되었다. 10월 11일(주일)부터 11월 29일(주일)까지 8주간 강의로서 각 과목별로 선착순 30명만 신청을 받아서 매주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오프라인(현장) 강의로 진행한다.



- ▶ 등록비 : 15,000원
- ▶ 등록신청 및 문의: 목회선교지원실 (☎ 02.2056.5734)

츠즈라이프 Choose Life [신약의 강]
정용식 목사 - 두란노 강의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쉽게 이해하고 싶은 성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며 봄학기에는 구약성경, 가을학기에는 신약성경을 공부한다.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에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말 1:2a)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였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말1:2b) 달리 말하면, “하나님, 대체 뭘 사랑했다고 하시는겁니까”. 천년 동안 쏟으셨던 하나님 사랑에 대한 사람의 마지막 반응이었다. ‘사랑의 반댓말은 무관심인 것처럼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 기간을 친구약 중간기라 부른다. 어쩌면 코로나19 시대는 그 중간기 400년의 역사와 닮아 있을지 모른다. 죄 많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다. 더불어서 예수그리스도, 구원의 역사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기도 하다. 이번 츠즈라이프는 친구약 중간기에서 요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한 흐름으로 말씀을 공부한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다’(요 3:16)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어번던트라이프 Abundant Life
[감리교회와 속회] 도신우 목사 - 양의 문
어번던트라이프는 성경과 교리, 교회 역사 등 더 깊은 차원의 배우고 경험을 위한 성경 공부이다.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 지도록 역사적·지리적 배경을 살펴보거나 감리교, 종교개혁 등을 배운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코로나19 시대에 삶의 위기, 신앙적인 위기를 맞게 된 우리에게 대안은 없는 것인가? 다행스럽게도 감리교회의 오랜 전통인 속회가 있는데, 이 속회가 코로나 팬데믹에 맞설 수 있는 신앙운동이 될 것임에 분명하다. 속회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서, 단순히 성경공부 모임이나 교인관리 수단이 아닌, 은총의 수단이다. 속회를 통해 영적인 위로를 받고, 성도 간 삶을 나누며, 더 나아가 사회적 사명들도 감당하게 한다. 그래서 이번 어번던트라이프에서는 <감리교회와 속회>라는 주제로 강의를 개강한다. 속회에 대한 이해, 속회 운영방법 등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강의를 한다. 속장이라면 특히 더욱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배우고 신앙 생활에 적용하면 어번던트라이프(Abundant Life)의 뜻처럼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변영혜 기자 yhyun1010@naver.com

내 인생의 말씀

우리 가정에 임하시는 주님의 사랑

저는 불교 가정에서 자라나 청년이 될 때까지 몸에 부적을 지니고 다닐 만큼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형수님이 집안에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는 교회와 교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형수님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1995년 어느 날 우연히 전철에서 만난 회사 동료가 “광림교회에 한번 와 보라”고 한 말에 얼떨결에 대답을 하고 광림교회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처음에 청년부는 낯설었지만 또래들과 교제가 너무 좋았고 김선도 감독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제 삶에 적극적인 신앙을 가져다 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년부에서 봉사하면서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었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인 두 자녀를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귀한 자녀가 태어나면서 아내와 함께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며 자녀에게 축복해주었던 민수기 말씀은 나의 삶을 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와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민 6:24~26)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저는 주일학교 교사로 7년을 섬겼고 2005년부터 남선교회에서 봉사하고, 아내는 성가대로 섬기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내려놓음과 인내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엡 6:10~11)

사탄은 우리 가정을 넘어지게 하려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환난과 핍박으로 간계를 부렸지만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5)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때 우리 자녀와 대대손손이 믿음의 가문으로 주님이 주실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됨을 믿기에 이 환난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로 인해 예배의 소중함이 더욱 절실한 이 때에 광림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교회 부흥을 위해 남선교회 회원들이 힘을 모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배민호 권사 (남선교회총연합회 문화체육본부장)

코로나 시대 “속회로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속회 지도자 교육 - 교회 부속기관 방문해 진행 중



“목자가 양떼를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주듯 목사님들께서 속장교육을 쉽고 편안하게 가르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통해 광림수도원의 아름다운 예배당을 보니 교구 식구들과 함께 갔던 일일기도회가 그리워집니다.” 최성인 권사(8교구)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광림의 속장들은 매주 업로드 되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속회지도자 교육을 받으며 각 속회에 접목시키고 있다.

성도와 교회를 이어주는 속회

속회는 성도와 교회를 하나로 이어주고 더 나아가 교회와 세상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이며 작은 교회의 역할을 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예배와 속회로 모이기 힘든 시기에 어떻게 하면 속장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

하던 중 광림의 목회자들이 성경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교육시키는 통로로 한층 새로워진 <속회 지도자 교육>을 매주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다. 기존의 설교와 강의 형식이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선교구 성가제 소개 영상처럼 재미있게 제작한 교육 영상이 성도들에게 큰 유익과 은혜를 전해준다.

특별히 정해진 형식 없이 영상 촬영을 위해 4명의 목회자가 방문하는 장소는 다양하다. 본당 뿐 아니라 교회 부속기관인 광림수도원과 세미나하우스, 지교회인 광림북교회 등을 방문해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위로하고 있다. 앞으로 광림남교회, 광림서교회, 비전랜드도 방문할 예정이다. ‘코너 속의 작은 코너’ 삼분속공은 속회인도

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키워드를 제시하여 3분 안에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준다. 적용과 나눔 시간은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여러 모습으로 보여준다. ‘기프트 속회’ 코너에서는 15개 선교구 중 한 속회를 추천해 기쁨의 찬양 5집을 선물하고 있다.

속회지도자 교육을 진행하는 김덕민 목사는 “코로나 시대에 속회는 신앙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전에 많은 사람이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아직 사회적으로 어렵지만 속회를 통해서 서로를 자유롭게 위로하고 격려해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속회지도자 교육의 목적은 믿음을 견고히 세워가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속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속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속회를 하면서 어려운 점, 궁금한 점을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회지도자 교육에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속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현수 기자 camancow@naver.com

“은혜로 삼시다!”

선교 사역을 위한 여선교회 추계바자회

광림교회 여선교회총연합회에서는 지난 9월 25일부터 추계바자회를 위한 사전판매를 시작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선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온 봉사와 헌신,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자회를 기획하며 준비했다.

이번 바자회는 세 가지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여선교회 임원들이 10가지 품목을 선정하여 브로셔를 만들었다. 또 각 품목별로 담당자를 정하여 온라인 주문을 받아 주일에 여선교회 사무실에서 찾아가는 방법으로 9월 25일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15일까지 판매할 예정이다.

둘째는 개체선교회가 참여하는 방법으로 개체에서 판매할 물품을 신청 받아 브로셔를 만들고 교구나 각 선교회에 홍보하여 주문과 판매는 개체선교회에서 담당하고 물품은 여선교회 사무실에서 찾아가는 방법으로 10월 16~27일까지 진행한다.

세 번째는 10월 27일(화)에 본당 밀레니엄 광장에서 아나바다 위주의 오프라인 바자회를 진행한다. 성황리에 판매가 진행 중인 품목 중 직접 만든 홈메이드 피클, 수제 호두파이와 라자니아는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다. 강원도 속초에서 직접 구입해 온 것갈과 최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임원들이 손수 만든 다마리 간장은 인기품목 중 하나다.

바자회 물품 구매 방법은 교구나 속회 선교회에 온라인으로 홍보된 브로셔를 통해 표시된 품목별 담당자에게 주문하고 선입금후 물건을 찾아가면 된다.

이화열 권사 (여선교회총연합회 회장)는 “여선교회 바자회는 선교사명을 위한 헌금마련과 개체선교회와 연합회의 하나 됨이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한 추계바자회는 온라인 바자회라는 새로운 모습을 탄생시켰습니다. 추계바자회는 연합회가 돕는 개체선교회의 바자회금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전적으로 개체선교회 위주의 바자회를 계획 중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사역은 계속 되고, 그것을 위한 여선교회 바자회는 어떤 형태로든 계속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 대부분의 모임과 행사들이 취소되고 있지만 여선교회 총연합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섬김을 실천하고 있다.

백명순 기자 bmssoon@naver.com

코로나 돌봄을 위한 여선교회 추계바자회 사전판매 “은혜로 삼시다!”

주문기간: 9/20-10/20일 문자주문 제품수령: 주일 사회봉사관 3F 여선사무실

#	제품설명	가격	주문 및 입금
#1	명란 (550g) 23,000원 백명란 (550g) 26,000원 오징어젓 (400g) 15,000원	이수자 010-2223-4292 신한은행 110-056-439525	
#2	참기름 (350ml) 10,000원	이명숙 010-7641-3139 농협은행 302-0929-3095-11	
#3	홈메이드 피클 유리컵병(450g) 8,000원 플라스틱 용기(500g) 6,000원	김해성 010-9379-3920 우리은행 524-077161-02-001	
#4	데일리백 30,000원 점정/세이비/카키 중 택1	이미선 010-6213-9870 농협은행 351-0825-4086-83	
#5	성경 돋보기 안경 15,000원/개 안경 케이스 포함 자주갈색/회색/보라 +1.0/+1.5 도수 중 택1	방정원 010-6746-7726 우리은행 366-9100-40-81807	

광림여선교회 추계바자회

코로나 돌봄을 위한 여선교회 추계바자회 사전판매 “은혜로 삼시다!”

주문기간: 9/20-10/20일 문자주문 제품수령: 주일 사회봉사관 3F 여선사무실

#	제품설명	가격	주문 및 입금
#6	수제 피칸파이 10,000원/ 1 판 캘리포니아산 호두 사용	양미옥 010-9008-9541 우리은행 1002-351-953-655	
#7	치즈 듬뿍 라자니아 6,000원/ 1 판	양미옥 010-9008-9541 우리은행 1002-351-953-655	
#8	김차/고추/다시마 부각 날개판매 5,000원/가봉 혼합세트 30,000원/1 box 김부각 15,000원/1 box	이현숙 010-3051-5174 국민은행 356202-04-022008	
#9	발사믹 글레이즈 (250ml) 10,000원	손지현 010-8753-5320 하나은행 3788-9032-968-107	
#10	다마리 간장 (900ml) 10,000원 10월 판매 예정	이수자 010-2223-4292 신한은행 110-056-439525	

광림여선교회 추계바자회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LFC Re:DM>



광림교회 청년부는 이번 10월 10일(토)부터 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 새로운 방송을 시작합니다. 청년부는 비대면 예배의 상황 가운데서도 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해 진행중인 3겹 줄 프로젝트 (예배, 교제,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교제'의 영역에서 보다 청년들과 깊이 있는 소통을 위한 방안으로 'LFC Re:DM'을 준비했습니다. 'LFC Re:DM'은 매주 토요일 밤 10시, 보이는 라디오 방송의 형식으로 청년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부는 사회 내에서 코로나 블루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청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하나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LFC Re:DM' 방송은 청년들의 신앙적인 질문과 개인적인 고민, 또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사연으로 받고, 그 중 한 사연을 채택하여 청년부 교역자가 다함께 해당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신앙적인 조언을 전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사연은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SNS 인스타그램 'LFC Re:DM'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매주 1회, 토요일마다 송출되며 녹화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방송이 활성화 되면 청년들과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송이 준비된다는 소식을 들은 강다희 속장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

고, 문제를 겪게 될 때마다 기도로 해결해 나가고 있지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청년들의 이야기와 목회팀의 디엠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주고, 힘차게 살아갈 힘이 되어주는 방송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라고 전했고, 유현수 지구장은 "고민과 걱정이 가득한 이 세대의 질문에 신학적인 답을 주어 청년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굳건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소통의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물음에 답을 제시함으로써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하는 일이 리더십을 통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청년부는 이번 라디오 방송을 통해 교제의 영역에서 쌍방 간의 소통을 이룸으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신앙 안에서 풀어가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청년들이 많은 영적인 유익과 도움을 얻게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진선규 전도사(청년부)

신앙 간증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저는 학창시절 선생님들의 신뢰를 받는 '열심히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20살이 된 후, 주일 오전예배만 드리면 되었던 학생 때와는 달리 속회나 목요쉐키나 등, 제 시간을 추가로 할애해야 하는 청년부에 적응하지 못하고 9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속회나 공동체 없이,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자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1년쯤 혼자 예배를 드리다보니 하루가 다르게 메말라가는 제 영혼을 보며 다시금 회복되고 싶다는 갈급함에 청년부안에서, 속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삶 나눔, 말씀 나눔, 기도 나눔 등 '나눔'으로 인한 교제가 생겼을 때 비로소 제 갈급함이 점차 회복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속장님이 권면해주시는 봉사의 자리들을 순종하게 하시면서 회복해 갈 즈음 하나님은 저에게 제 친구들을 향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중고등부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소중한 친구들이 청년부에서 다시금 열정적인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비전을 갖고 처음으로 중보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던 중에, 예비속장교육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봉사의 자리면 몰라도 속장을 하기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속장의 위치가 친구들을 위해 더 섬기고 기도 할 수 있는 자리이자 묵묵히 중보자가 되고싶다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 이렇게 속장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번 호렘산 기도회를 완주하며 기도를 통해 쌓게 하셨습니다. 새롭게 세워질 속회를 놓고 기도할 때에 매일 깨어지며 하나님의 동행하심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호렘산 기간이 학교 공연준비 기간과 겹쳐 학교에서 늦은 시간까지 공연 준비를 한다는 것이 체력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호렘산에 올라 지혜를 구할때면 지혜를 주셨고, 시험을 당할때면 피할길을 주사 능히 감당하게 하셨으며(고전 10:13), 주위 사람들을 통해 위로해주시고 채워주셔서 공연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고, 호렘산에 올라 속회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또한 허락해주셨습니다.

저희 속회가 세워진지 이제 두달이 되었습니다. 속원들 한명 한명이 신앙생활 하는 데에 있어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기쁨을 오직 주님 안에서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고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소연 속장(청년부)

아오테아로아(Aotearoa)-'길고 흰 구름의 나라' 뉴질랜드

뉴질랜드 광림교회



2018년 12월 27일 목요일 오전 8시 40분. 오클랜드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상에 처음으로 와 본 남반구의 섬나라 뉴질랜드였습니다. 뉴질랜드는 남위 41도 지역에 위치해 있기에, 대한민국과는 계절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2018년 추운겨울에 한국을 떠났는데, 뉴질랜드는 한여름이었습니다.

뉴질랜드 광림교회는 1995년 4월에 감독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1996년에 현재의 교회건물을 구입하여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본당 건물 한 동과 사택 세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약 1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축구장도 있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에는 작은 바닷가가 있고, 바닷길을 따라서 양쪽으로 한 두 시간 정도의 산책로도 조성되어 있는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창립 때부터 지켜오신 20년이 넘는 분들도 계시고, 새롭게 정착을 위해 영주권을 준비중인 가정도 있으며, 어머니가 자녀들과 함께 와 있는 유학생 가정도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이민교회임에도 뉴질랜드의 모든 교회들 중에 유일하게 매일 새벽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본당과 동일하게 호렘산 40일 특별새벽기도회, 트리니티, 수요치유의 신학, 금요은혜의 밤도 하고 있습니다.

본당과 동일한 은혜를 함께 누리

주일예배는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부 오후 2시(청년)에 모이고 있으며, 주일에는 1부(나사렛)와 2부(갈릴리) 성가대가 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현재 중고등부가 약 80여명, 아동부가 30여명, 청년부가 20여명 모이고, 저와 수련목회자 두 명이 함께 동역하고 있

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광림교회에서 전도사 과정을 거친 목회자들 중에 현재 뉴질랜드에서 목사로 목회하고 있는 이들이 5명이나 있습니다.

뉴질랜드 광림의 성도님들은 한국에서 10,000Km나 떨어져 있지만, 광림교회와 같은 대심방 선물을 받고, 같은 속회공과로 속회예배를 드리고, 같은 주제로 호렘산기도회를 하면서, 본당과 동일한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본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이지만, 기도로 하나되는 이곳 뉴질랜드 광림교회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명환 목사(뉴질랜드 광림교회)

헌신하시겠습니까?

- 목회현장 -



김항호 목사(광림남교회)

얼마 전 남교회에 온라인 방송을 위한 기기가 부족함을 아시고 한 권사님 가정에서 현물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은 당연히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어 현물하신 것으로 교회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귀한 성도님들의 헌신이 많기에 얼마 전 있었던 한 권사님의 현물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아주 특별하다고 말하긴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의미로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 이 시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경제가 많이 어려운 때입니다. 활동도 어렵고, 그래서 수입도 예전 같지 않을 때에 한 달 생활비 이상 헌신을 한다는 것은 쉬이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헌신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며 필요한 곳에 쓰고 남은 금액을 전부 내놓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지금 우리는 교회의 권위를 도전받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인 양 터부시하고, 세상의 괴로움을 낳는 것처럼 호도하는 이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세워 가시겠습니까? 더 이상 교회의 선함을 보여드리지도, 인정하려 하지도 않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어떤 헌신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헌신하시겠습니까? 앞의 권사님 처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권사님의 헌신을 두 렘돈을 드린 여인(눅21:2)과 같이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교회의 역사 속에 어렵지 않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볼 것이 아닌 언제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바울과 같이 도리어 헌신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되길 원합니다. 이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내가, 우리가, 교회가 누릴 줄 믿습니다.



금방 끝날 줄만 알았던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막혔던 예배실에서 함께하는 예배가 다시 열렸으나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 전염에 대한 부담으로 청장년부는 여전히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청장년의 이름으로 모였던 모임을 올해 초에 모이고, 못 모인 지 얼마나 지나버렸는지... 서로의 대한 그리움과 교제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 청장년부 모임이 간절하여 온라인에서라도 만나 모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 교회와 온라인 학습 강의들의 형태들을

확인하며 ZOOM이라는 어플을 통해 실시간으로 쌍방향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온라인 모임으로 준비했습니다. 청장년 온라인모임 시간을 정하고 공지한 후, 먼저 한 주 전 미리 모임을 위한 기도회를 ZOOM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비록 영상을 통해서이지만, 정말 오랜만에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고, 소리 내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참으로 은혜로웠습니다. 비록 같은 장소에 있진 않지만 서로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으며 함께 기도하며 그 동안 누리지 못한 갈급한 마음에 단비와 같은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청장년부 모임날, ZOOM으로 한 명씩 한 명씩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 아이들도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반가워합니다. 새삼 한 명 한 명이 참 귀하고 귀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함께 목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목사님의 설교말씀을 듣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함께 기도 할 중보제목을 나눴습니다. 비록 처음이라 중간에 마이크가 꺼지기도 하고, 크고 작은 문제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모임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이 코로나로 인해 그 동안 쉽게 누렸던 부분들이 참 귀하고 귀함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청장년부가 더욱 소중히 여겨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청장년부의 모임을 다시 시작했으니, 이 기회로 남교회 젊은 가정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으고 더욱 유대감이 깊어지길 기대해봅니다. 비록 작은 시작이지만 이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다음 ‘청장년부 온라인 모임’을 기도로 준비합니다.

김태연 집사(광림남교회 청장년부회장)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는 <광림북교회>



토요일 오전 11시, 광림북교회 젊은 남성 속회가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온 가족이 토요일이면 함께 모였습니다. 아름다운 민락천 산책로 끝자락에 있는 광림북교회는 성도들의 영혼육의 안식처입니다.

젊은 가정들이 루체포레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남성들은 속회로 모여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다. 코로나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집에 두고서라도 남성들만의 속회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속회로 모이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은혜롭고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남성 속회와 스테판 선교회는 올해 큰 비전과 포부를 갖고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많이 모여 교회의 부흥을 이끄는



것은 물론이고, 자체 사업(바자회-과일장사)을 통해 선교비 마련, 소외된 이웃을 향한 사랑 나눔, 교회 봉고차 구입 등 많은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 사업이 더디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의 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본당에서 함께 진행한 ‘광림 선한나눔운동’에 북교회 온 성도들이 동참하여 많은 물품이 모여졌습니다. 일회용 마스크 5,000개와 각종 생필품 등 스타렉스 한차 가득 채워 본당으로 물품을 보냈습니다. 본당에서 박스작업을 거쳐 다시 북교회에 20개의 박스를 주셔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선물 박스는 위기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의정부 청소년 쉼터(십대지기)에 전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라는 광림교회의 슬로건 아래, 광림의 5대 전통을 배우고,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살기를 다짐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남성속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매주 모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본당 몇 명 목사님들께서 토요일에 북교회 방문하셨습니다. 요새 너무나 hot한(?) 속회지도자교육 촬영을 북교회에서 진행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오셔서 격려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셔서 남성속회도 더욱 힘있게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북교회는 의정부 ‘민락동(民樂洞)’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름 그대로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동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북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 시켜주시길 기도하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광림북교회를 위하여 많은 기도부탁드립니다.

황영재 목사(광림북교회)

영아부, 아기들이 성경말씀 듣고 하나님을 만나요



“태민이 태오는 코로나에도 매주일 빠짐없이 예배드려요”

첫아이 태민이는 2018년 5월생으로 생후 29개월 된 세살박이입니다. 둘째 태오가 2019년 6월에 태어나 불과 13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연년생입니다. 태민이는 200일 정도 무렵부터 지금껏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주일 영아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태오는 그보다도 어릴 때부터, 올해 3월부터 꾸준히 따라왔습니다. 저는 아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이 아니면 못할 일이란 생각에 첫째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휴직하고 육아에 전념하며 거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아기를 돌보는 데 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고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한 즐겁습니다. 대범한 성격이 못 되어서, 자극적인 음식도 주지 않고 동영상에 노출시키지도 않으면서 산책과 독서로 하루하루를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제가 애지중지하는 태민이와 태오를 저 혼자만 키우는 것은 아니고 매일 오시는 이모님도, 남편도, 집 앞 국공립어린이집도, 친정 부모님도 키우십니다. 무엇보다 광림교회 영아부도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시간이 채 안 되는 이 예배시간이 태민이와 태오,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 얼마나 소중한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아부에서 돌쟁이 아기도 예배드려요

흔한 오해와 달리 영아부는 부모가 대예배를 드릴 동안 단순히 안전하게 아기를 맡아두는 탁아소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돌쟁이, 두 돌쟁이 아기들이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해 가장 먼저 접하고 성경을 알게 되는 놀랍고 귀한 곳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데 이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일러주는 아주 드문 곳입니다. 박윤아 전도사님의 설교에서 놀란 것은 내용보다도 전달하는 자세의 진중함이었습니다. 영아부 설교라고 하면 많이들 ‘아기가 무얼 알아서’의 반응을 보이곤 하지만 광림 영아부의 분위기는 그

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매주 예배를 들어갈 순 없지만 솔로몬예배학교나 성경학교에 들어가고 밴드에 올라오는 사진과 영상을 보면 교사들과 전도사님이 언제나 진지하고 사려 깊게 성경을 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과공부도 마찬가지로 정성스럽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를 배운 날엔 종이물고기 와 자석, 클립, 나무젓가락으로 낚시놀이를 만들고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을 종이접기 하고 색칠합니다. 여름성경학교 때 만든 만화경과 요나가 들어간 투명한 고래뱃속은 아직도 태오가 잘 가지고 놉니다. 무엇보다 제일 좋아하는 것은 찬양과 율동입니다. 태민이가 얼마 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읊조려 깜짝 놀랐습니다. 노래를 매주 해 외우게 된 것입니다. 물론 보다 짧고 경쾌한 다른 찬양들을 더 자주 부르고 좋아합니다. 제가 보진 못했지만 둘 다 찬양시간에 적극적이라고 하십니다. 태민이에게 오늘 뭘했냐고 물으면 항상 “찬양했지!”가 가장 먼저입니다. 즐겁게 춤추며 노래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식된 것 같습니다.

매주일 깨끗한 옷과 헌금을 준비해요

28개월, 13개월 아기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개나 사울을 내 손으로는 해하지 않겠다고 용서한 다윗 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9월 주제). 그러나 말씀 듣는 것과 아닌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 주일 그 시간 교회에 가지 않는다면 다른 콘텐츠로 가득 찬 보다 유익하고 부모에게 편안한 시간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고 깨끗한 옷을 골라 입고 헌금을 준비합니다(저희 부모님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적은 돈이라도 꼭 직접 내게하셨고, 머리를 단정히 묶고 바로 앉아서 설교를 듣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때의 기억도 많이 납니다)

제 새끼 털은 함함한 ‘고슴도치 엄마’라 태민이와 태오의 일거수일투족이 사랑스럽지만, 아기들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수고스러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물을 마시고 마음대로 안 되면 울고 갑자기 잠이 들고 기저귀도 갈아주어야 합니다. 말썽을 부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천지분간 못하는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예배가 될까’라는 고민을 한다면 세상에서 제일 많이 고민한 분들이 바로 다름 아닌 영아부 교역자, 담당자분들일 것입니다. 아기들은 울고 떼쓰고 투정하고 잠들기 때문입니다.

영아부 선생님들께 감사해요

주일의 귀한 시간을 봉사에 할애하는 많은 선생님들이라고 왜 현실적인 고민과 회의가 없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감과 인내로 한 주 한주 이렇게 순조로이 운영하시는 것을 보면 고개가 숙여지고 감동받습니다. 신기하게도 평화롭고 웃음이 넘치는 영아부실을 볼 때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 마음의 경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존재와 절대자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막무가내인 어린 아이들을 꼭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는 선생님들에게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광림교회와 영아부를 알게 돼 참으로 감사하고 임신, 출산, 육아가 단시간에 휘몰아친 탓에 분주하고 피로해 교회의 직분이나 봉사에 소홀한데 송구한 마음입니다. “태민이, 태오 좋은 꿈꾸고 잘 자게 해 주세요”라는 말을 마치고자마자 “엄마, 아멘 해야지”하는 세살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루빨리 교회와 주님의 일을 저도 감당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는 아이들, 쉽지 않겠지만 영아부와 함께 열심히 키워가겠습니다. 늘 아이들을 위해 기도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봉한 장로님(영아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창규, 김나래 성도 (4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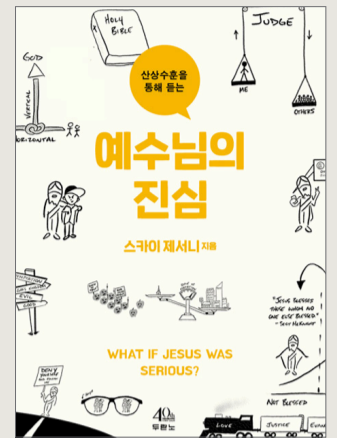
광림교회 영아부

광림교회 영아부는 어린이가 아기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 수 있도록 믿음의 기초를 다지는 부서입니다.

- ▶ 대상: 생후~30개월 영아
- ▶ 예배시간: 영아1부 9시, 영아2부 11시
- ▶ 장소: 사회봉사관 3층 영아부실
- ▶ 문의: 02. 2015. 1167
- ▶ 담당: 박윤아 전도사

김정석 담임목사의 추천도서

책으로 쌓는 교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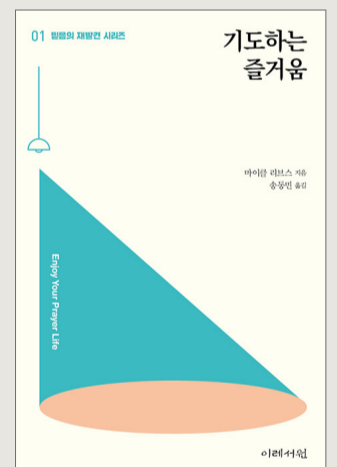


[예수님의 진심]

스카이 제서니 지음

저자는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가르침인 ‘산상수훈’을 재치 있고, 날카롭고, 참신한 시각으로 조명함으로써, 산상수훈에는 익숙하지만 자신을 위한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분주한 삶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멀리 있는 자들에게 일침을 날린다.

이 책은 재미있고 쉽게 읽히며, 단순히 성경 해석에만 그치지 않고 현대에 비추어 산상수훈을 풀이하고 적용함으로써, 그 가르침이 단지 예수님 시대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회복력 있는 신앙]

제럴드 시처 지음

초대교회 이야기를 쉽게 풀어쓴 책으로, 저자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사건들이 당시 고대 그리스-로마 사회의 일상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증거한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고립과 순응이라는 양극단에서 ‘제3의 길’을 택하여, 로마제국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구현함으로써 세상을 회복해 나갔는데, 저자는 우리에게 지금 이곳에서 그 회복력 있는 신앙을 살아내도록 촉구하고 있다.

위 책들은 광림사회봉사관 1층 ‘빛의 숲’서점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목회선교지원실 02-2056-5730

이스라엘 역사 전문가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유물과 함께보는 성경과 역사

27 크눔호텝 2세의 무덤 벽화 (Beni Hassan 3)

“검은색 눈화장 안료(mesdemet)를 가져오기 위해서 방문하다 : 그는 서른 일곱명의 아무(Aamu)를 데리고 왔다”



▲ 이집트의 베니 하산(Beni Hasaan)의 무덤 지역에 있는 크눔호텝 2세(Khnumhotep II)의 무덤에서 발견된 벽화

1

글자가 일반화 되기 이전까지 그림은 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발명된 이후에도 그림은 글자와 같은 정보 전달의 주요한 매개체였고, 그림이 담고 있는 정보는 글자가 전달하는 정보보다 훨씬 더 시각적으로 구체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외모를 표현할 때, 글자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은 한 사람의 외모를 서술하는 몇십 문장보다도 훨씬 효과적으로 그 사람의 외모를 묘사하지요. 그래서였을까요?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람들은 글과 그림을 거의 함께 병행하여 기록하였습니다. 특별히 이집트 사람들은 글과 함께 그 상황을 그림으로 생생하게 표현하는데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남겨놓은 그림 유산은 구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는 배경 정보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서들을 남겨 놓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사진은 2013년 미국에서 방영되었던 미니시리즈 '성경' The Bible 의 한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장면은 창세기 22장을 바탕으로 참 잘 묘사했습니다. (유튜브에서 “The Bible 더바이블”로 검색하시면 한글 자막으로 이 미니시리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의 제작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중의 하나는 당시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재구성하는 것일 겁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당시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옷을 입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사극이나 고대물 영화를 만들 때에 의상 감독들이 당대의 의상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참 많은 자료들을 참조하고 의복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자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학자들은 책이나 병풍, 족자, 묘실의 벽화 등 남아있는 그림들을 바탕으로 해서 고대의 의상들을 재구성 해내지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어떤 그림도 없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인 율법 때문인지는 몰라도 사람들의 형상들을 제대로 남겨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옷을 재구성할 때에는 베두인이라 불리는 유목민들의 전통의상을 밑그림 삼아 로마 사람들의 옷을 참조하고, 로마에 남겨 있는 벽화나 그림들로 색을 입혀 옷을 재구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보다도 대략 2,000년 전의 아브라함 시대의 옷은 도대체 어떻게 복원할 수 있단 말인가요?
감사하게도 이집트 나일강 중류의 베니 하산(Beni Hasaan)이라는 곳의 묘지 구역에서 아브라함 시대에 가나안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집트 사람들 눈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아브라함이 차이가 없었음)을 묘사해 놓은 벽화가 발견되었습니다. 베니 하산의 묘지 구역에는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던 시기 즈음의 파라오 세누스레트 2세(Senusret II : 통치 1897 - 1878 BCE) 때 네게브 지역과 사막의 동쪽의 방대한 지역을 관리하던 지방 행정 장관 크눔호텝 2세(Khnumhotep II)의 묘실(BH3: Beni Hasan tomb No.3)이 있습니다. 묘실의 넓은 방은 크눔호텝 2세의 치적들과 그가 얼마나 이집트에서 유력한 사람인지를 장황하게 글과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아무(Aamu)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행렬의 그림입니다. 이 행렬에는 이집트 사람들과는 복장도 다르고 머리 모양도 완전히 다른 일곱명의 남자와 네 명의 여자, 그리고 3명의 어린이들이 당나귀 두마리와 바위 염소(Gazelle) 두 마리가 있습니다. 이 행렬 맨 앞에는 이들을 크눔호텝 2세에게로 데리고 가는 이집트 관리 두 명이 있어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분명하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는 이집트 상형문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검은색 눈화장 안료(mesdemet)를 가져오기 위해서 방문하다: 그는 서른 일곱명의 아무를 데리고 왔다”

이 아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지만, 모든 의견들을 종합해 보건데 요 단 강너머 모압과 암몬 지역을 포함하여 가나안을 비롯한 지중해 동편 시리아에 이르기까지의 해안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벽화에는 친절하게도 아무들을 이끌고 온 지도자의 이름이 쓰여 있는데, 그 이름은 “아비샤리에(아비샤르)”라는 전형적인 셈어족(히브리어가 셈족 언어임)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포함하여 가나안 지역을 기준으로 위 아래의 방대한 지역에 살던 셈족들이 아무들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입은 옷을 보면, 모두가 한쪽 어깨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옷에 새겨진 문양도 기하학적이고 화려하지요. 이런 옷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일상적인 옷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럼 크눔호텝 2세의 묘실 벽화를 근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나안에 살던 아브라함의 머리 모양은 이집트 사람과는 달리 턱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둥글게 깎았으며,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을 받아서 한쪽 어깨가 드러난 긴 옷을 입었다” 자, 그렇다면, 미니시리즈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옷은 고고학의 고증에 근거하자면, 시대를 제대로 반영한 옷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사진설명

- 1 크눔호텝 2세의 무덤 벽화 (Beni Hassan 3)
- 2 미니시리즈 '성경'(The Bible)의 한 장면
- 3 베니하산(Beni Hasaan) 지역과 가나안 지역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